



潘 장관, 유엔사무총장 예비투표 1위

1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중 찬성 12표 출마자 4명 상대 조사...9월께 2차 투표

반기문(사진) 외교통상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안보리 1차 예비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반 장관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일단 반 장관의 사무총장 도전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AP통신은 반 장관이 찬성(Encourage) 12표와 반대(Discourage) 1표, 기권(No opinion) 2표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현 유엔 사무총장인 인도의 샤시 타루르가 찬성 10표, 반대 2표, 기권 3표를 받아 2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는 태국의 수라키와 사티라타이 부총리 겸 문화장관은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5표로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으며 스리랑카의 자야나타 다나팔라 후보는 찬성 5표, 반대 6표, 기권 4표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예비투표는 각 후보에 대한 15개 상임이사국의 입장을 알아보는 일종의 '맛보기 투표'로 출마자를 제출한 4명의 후보를 상대로 실시됐다.

출마표를 던진 4명의 후보 가운데

1위라는 것 자체가 반 장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안보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유엔 주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유엔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번 투표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 장관이 적어도 4명의 후보 가운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앞으로 수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소식통들은 이번 예비투표에서 1등을 했다 해도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사무총장이 될 수 없다면서 본격적인 예비투표

가 시작될 때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반 장관이 이번 예비투표에서 1등을 했지만 문제는 반 장관을 던진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며 이번 투표 결과를 이 사국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들은 본선은 9월부터 시작된다면서 일본이 4명의 후보 모두에게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는 찬성의 의미가 아니라 아직 입장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의 의미를 곁들이고 있다.

소식통들은 이번 예비투표에서 1등을 했다 해도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사무총장이 될 수 없다면서 본격적인 예비투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2개국 외무장관들이 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9회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 참가,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오늘 개막

南北 외교장관 회담 추진... '6자 회의' 가능성도

한·중·일 3국과 동남아 10개국의 협의체인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 확대 외교장관회의(PMC)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26일부터 28일까지 잇달아 열린다.

특히 ARF에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참석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회의는 미사일 발사와 유엔 안보리 결의문 채택 이후 북한 사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기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 외무장관 남북 외교장관 회동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참여하는 만큼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이 모두 참가하는 비공식 6자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남북 당국자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라는 점 등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남북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정부 당국은 반 장관과 백 외무상의 쿠알라룸푸르 체류일정이 겹치는 27~29일 사이에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 장관은 이와 함께 공식 회의 일정과는 별도로 26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27일 아소 다로 일본 외상 및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28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각각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 밖에 "다자 외교의 특성상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면서 "백 외무상과 라이스 장관을 포함해 6개국 외교장관이 참가하는 6자회담, 또는 캐나다, 호주 등이 참가하는 7자, 8자회담 등 다양한 회의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北-中 혈맹관계 '균열'

中, 北계좌 동결 이어 탈북자 미국 직행 허용

'혈맹'을 자랑해오던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북한 미사일 사태 이후 심상찮은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순(南巡) 방중, 미국의 대북한 압박공세를 계기로 북한 경제부자를 가속화하며 북한의 체제 존속을 적극 지원하던 중국이었다. 한국 일각에선 중국이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심화시켜 북한을 '삼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을 정도였다.

그러던 중국이 최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삼아 '북한 카드'를 버리기로 작심한 양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충격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 국유은행인 중국은행(BOC)이 북한의 위조지폐 사건과 관련, 북한 계좌를 동결했다는

주장을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선양(瀋陽) 미국 영사관으로 담을 넘어 들어간 탈북자를 요구해 온 탈북자 4명 가운데 3명이 중국의 동의를 받아 22일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이 자국 내 미국 공관에 들어간 탈북자에게 미국 직행을 허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최근 중국의 대북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중국은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달라는 자신들의 요청을 묵살한채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게다가 평양까지 찾아가 실득한 6자회담 북귀'도 무위에 돌아가면서 북한에 대해 못마땅한 감정이 팽배해있다.

북한이 또 결의안에 대한 즉각적인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중

국 지도부는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으로선 혈맹 중국이 자신들을 비난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배신감을 토로하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에 불신감을 비추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온다.

중국이 계좌동결 문제나 탈북자 문제에 있어 미국과 공조체제를 가동하면서까지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가 맞서는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틀바구니에서 활로를 모색해온 북한이 중국의 변화된 기류를 읽지 못한채 미사일을 발사, 유일한 우군(友軍)을 잃고 고립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수단, 反美 시위
수단 학생들이 24일 수도 카툼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항의하며 미국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아세안 외무장관들 이스라엘 비난

아세안 10개국 외무장관이 25일 이스라엘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비난하는 한편, 유엔 감시하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세안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중동지역의 상황 악화와 급증하는 폭력 사태, 특히 레바논 내에서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무력 사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과 재산 손실을 피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국들이 극도의 자제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유엔 감시하에 즉각적인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연합뉴스

日, 외신기자 독도방문 항의

일본 정부가 24일 도쿄 주재 외신기자단이 독도를 방문한데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방문을 허가한 것은 독도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다르며 국민감정도

해치는 일로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며 항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중순 독도 방문을 추진한 일본외국특파원협회에 대해서도 "일본에 있는 특파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하는 것은 보도의 중립성을 해친다"며 방문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카다피 "핵폭탄 제조 직전까지 갔었다"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를 선언했던 리비아가 간밤의 차이로 핵폭탄 제조를 포기했다고 리비아 언론이 24일 밝혔다.

리비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핵폭탄 제조 시도를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이날 "핵폭탄 제조를 일본 직전에서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조사한 것처럼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과 장비들은 이미 다 알려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리비아는 2003년 12월 대량살상무기 제조를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사찰을 받아들여기로 했고 미국은 지난 5월 리비아와의 공식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apharm.co.kr

Love is the best Medicine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맡아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안과 일반의약품

- 카탈라 인안액
- 신도통 쿨 점안액
- 타이틀 점안액

고객센터 문의 : 02-222-2220 (주식회사) 02-222-2220 (주식회사) 02-222-2220 (주식회사)

국제약품이 키움으로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고객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도 좋은 약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